

# 라인홀드 니버의 사랑과 정의 연구

-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 -

권일훈\*

- I. 문제제기
- II. 사회 부정의의 원인
- III. 니버의 사회 정의
- IV. 사회 정의 실현의 방법
- V. 사랑의 개념
- VI. 사랑의 역할
- VII.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으로의 사랑
- VIII.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
- IX. 결 론

## I. 문제제기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sup>1)</sup> 어느 라틴 아메리카인의 울부짖는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들에게 정의는 빵의 문제만큼 심각하고 절실한 삶의 문제이다. 정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세계 도처

---

\* 숭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1) Nicholas Woltersto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Wm. B. Eerdmans Publishing). 1983, 2

에서는 부정의로 인한 외침과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도 부정의에 대한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와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조두순사건 등), 비 정규직법으로 인해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정의를 정의되게 하는 요소는 힘<sup>2)</sup>이다. 필자는 니버 사회정의론에서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를 문제 삼을 것이다. 힘은 정의를 정의되게 할 뿐만 아니라, 힘은 집중, 남용 되므로 힘이 정의 실현을 파괴시킬 수 있다. 힘만으로는 사회가 삭막해지고 경직되어진다. 그러므로 사랑의 개념이 요청되는 것이다. 정의를 정의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의 최고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김기순 교수는 정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원리가 문제되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sup>3)</sup> 첫째, 정의로운 상태의 실현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가 없어서는 안 될 요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가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삭막한 사회일 것이다. 정의는 사랑에 의해서 고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전한(perfect) 정의이기 때문이다.<sup>4)</sup>

## II. 사회 부정의의 원인 (cause of injustice)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완전하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사회를 이

2) 파워(power)를 힘 또는 권력(權力)이라 사용함. 힘은 포괄적인 개념이며 유(類)개념이라 할 수 있다면, 권력은 주로 힘이 정치의 영역에서 행사되는 종(種)의 개념이다.

3) 김기순, 「권력의 사회 윤리학적 고찰」,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4, 180

4) R.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3 . 246 (사랑은 역사안의 모든正義의 성취의 완성이다)

루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으며, 많은 사회 부정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인홀드 니버는 우리가 사는 사회 부정의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인간 본성(本性)에서 찾는다. 인간은 원죄(原罪)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 구성원(構成員)들 간의 힘의 불균형(不均衡)에 원인이 있다고 파악한다. 셋째는, 재화의 한정을 말한다.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사회 부정의가 발생한다.

## 1. 죄인으로서의 인간

니버는 사회 부정의와 불의는 인간 본성이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의 이기심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현실 사회의 부정의(不正義)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과, 타락(墮落)하여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sup>5)</sup> 니버는 성경의 내용을 인간 본성에 적용한다. 성경의 죄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被造物)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또한 전체 생명의 통일체 속의 하나의 일원에 지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실에서 야기된다는 것이다. 니버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죄를 종교적이며 도덕적 용어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죄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며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篡奪)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도덕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죄는 부정의(injustice)이다.”<sup>6)</sup> 니버는 사회 부정의의 원인을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찾는다.

5) 『성경』, 구약, 창세기 참조

6) R.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l.*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1), 179

## 2. 힘의 불균형 (unbalance of power)

니버는 사회에서의 부정의의 원인은 디트로이트 목회에서 경험했듯이, 그것은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힘의 불균형 이라고 갈파한다. 따라서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가 요원하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건 계급지배이건 간에, 집단적 권력이 약한 자를 착취하고 있을 때에, 힘이 그것들에 대하여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절대로 그것들을 제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양심과 이성이 그들 사이의 투쟁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그 싸움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결코 근절 시킬 수는 없다. .... 싸움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힘은 힘으로만 도전케 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회학자들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힘(권력)의 불균형이 너무 큰 곳, 사회적 세력의 균형이 결여된 곳에서는 어떤 단순한 합리적 혹은 도덕적 요청도 정의를 성취할 수 없다.<sup>8)</sup>

니버의 분석에 의하면 현존하는 역사 속에서의 모든 부정의는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니버는 불평등의 원인도 사회 안에서의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 줘야한다.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기업주가 굉장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주장은 하나도 설득력이 없다 해도 노동자들과의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7) R.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charles scribner's new york, 1953서문 xxiii)

8) Robertson, D.B.ed: *Love and Justice*,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76), 207

공장 노동자들이 기업주들과의 대결에서 ... 중략 .... , 사회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 때문에 조성된 사회 모순의 조정이 그 힘의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의의 도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sup>9)</sup>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회의 모든 부정의들의 해결 방법은 힘의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니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니버는 힘의 부정의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부정의로 나아간다는 것은 공리로 삼아도 될 것이다.”<sup>10)</sup>

### 3. 재화의 한정

사회정의의 문제는 물자가 지나치게 풍부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모자라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나치게 많은 몫을 차지한 사람이 생기는 동시에 그로 인하여 굶주리거나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상황에서 정의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재화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투쟁이 뒤따르게 된다.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사회 부정이가 발생한다. 힘 있는 사람은 더욱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정된 재화는 불평등한 분배를 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부정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대 정의의 문제는 여전히 분배 정의와 관련이 깊다.<sup>11)</sup>

9) R. Niebuhr, *moral man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3, xvii)

10) Robertson, *Love and Justice*, 199

1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분배 정의의 문제는 롤스의 정의론을 참고할 것

### Ⅲ. 니버의 정의

#### 1. 정의의 규칙(規則)

카렌 레베크에 의하면 니버에게 정의의 원리와 규칙이 존 롤스(Jhon Rawls)나, 노직(Nozic)처럼 체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니버에게 있어서 정의의 일반적으로 타당한 원리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liberty)와 평등(equality)이다. 자유는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이며, 따라서 언제나 핵심적인 가치로 등장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경제 영역에서의 대부분의 경우에 힘 있는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니버는 자유가 중요함에는 틀림없으나 공동체의 공공선의 윤리적 목표에 의해 자유의 내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니버에게 있어서 평등은 정의에 대한 최고의 기준으로 등장한다. 사랑을 삶의 마지막 계율로 삼는 종교는 만일 사랑의 이상에 대한 정치, 경제적 접근으로서의 평등이라는 정의를 지지하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해버린다.<sup>12)</sup> 평등이란 “정의의 규제적 원리, 즉 모든 정의의 도식의 바탕에 있는 비판의 원리이다.”<sup>13)</sup>

평등한 정의는 죄의 상황 속에서 형제애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평등은 인간의 필요에 따른 공평함을 추구하는 경제적 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평등한 시민의 권리 같은 실질적인 목표로서의 평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다. 니버는 평등한 정의가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였다. 보다 큰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분쟁은 특권의 영구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력에는 거부되어야 할 도덕적 정당성을 가졌다.

12) R.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and London), 80

13) R.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65-66

더 큰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갈등은 특권을 영구화하려는 노력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억압자들이 힘으로 지배를 유지하려 할 수밖에 없는 반면, 피억압자들에 대항할 수 있는 더 고차적인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sup>14)</sup>

## 2. 정의의 구조(構造)

정의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 이성이 정의를 확립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니버의 설명을 보면 분명해진다. 이성은 정의의 규칙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성 일관성의 기준을 통해 우리는 정당화 될 수 없는 특권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판단하도록 해 줄 것이다. 이성은 사회의 상황 속의 요소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해 준다. 더욱이 이성은 환상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정의를 확립할 수 없다. 우선, 이성 자체는 인간의 열정이나 관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성은 타락하기도 한다. 권리와 이해에 대한 모든 이성적 평가는 우연적이고, 유한하며, 열정과 이기심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염된 정의의 개념을 제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진리는 결코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더욱이 니버는 합리성의 발전이 편파적인 사회적 이해를 보편적인 이해인양 가장함으로써 사회 정의에 대한 탐구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sup>15)</sup> 특히, 특권 계급은 이런 식의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하고 있는 합리적인 계산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sup>16)</sup> 또한 니버는 “사회적 부정의에 의해 이익

14) R.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234

15) R.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37

을 얻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부정의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억압자에게 일종의 인식론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합리적 기준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성의 왜곡에 기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기도 하며, 권리와 이성적 평가는 우연적이고, 유한하며, 열정과 이기심에 의해 오염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분쟁에 있어서 중립성이 불가능한 것도, 중립을 지키는 노력이 실제로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균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이다.<sup>17)</sup> 두 번째로, 정의는 이성과 열정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적인 삶의 총체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성 단독으로는 정의를 확립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니버의 주장에 따르면, 현실주의는 역사가 단순한 합리적 과정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과정임을 알고 있다.<sup>18)</sup> 역사 속에서 정의는 규칙과 원리 뿐 아니라, 경쟁하는 힘의 균형 및 인간의 생명력을 길들이고, 질서를 확립하는 일도 포함한다. 이것은 정의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힘(권력)이나 강제력의 사용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의는 힘의 상당한 평형이 확립되었을 때에만 달성된다.”<sup>19)</sup> 니버는 아마도 힘의 균형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왔다는 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정의도 다양한 이해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니버에게 있어서, 이것은 또한 힘이 부정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체제 속에서 정의는 재화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질서를 확립하고 힘의 균형을 잡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의를 위한 투쟁은 부정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힘을 위한 투쟁이다.

16) R.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62

17) Robertson, *Love and Justice*, 254

18) Robertson, *Love and Justice*, 207

19) Robertson, *Love and Justice*, 52



#### IV. 정의로운 사회실현

##### 1. 정의 실현의 방법

사회정의 실현의 방법에는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접근이 이루어지질 수 있다. 하나는 이성과 도덕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힘의 방법이다.

##### (1) 도덕적 설득방법

라인홀드 니버는 아래의 인용문을 통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에 힘과 더불어 도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사회의 평화와 정의는 그러므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회적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들 모두에는 도덕적인 요소와 강제적 요소가 서로 다른 비율로 뒤섞여 있다. 전제주의의 Scylla와 무정부주의의 Charybdis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사회를 위한 영구한 평화와 형제애의 꿈은 결코 역사 속에서는 실현되지 아니한다고 예언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 그것은 개인의 양심과 통찰력에 의하여 촉구되지만 집단적인 인간에 의해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비전이다. 그것은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는 근사적 접근은 가능하나 그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한 모든 종교적인 비전과 같다고 하겠다.<sup>20)</sup>

니버에 따르면 개인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는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 도덕적 호소와 설득에 의존한다.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는 어느 정도 도덕과 설득의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과 정의의 사회적 실현은 정치적 정책에 의존하며, 정치적 정책은 정치적 힘이

---

20) R.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21-22

강제력에 의해서 뒷받침 된다. 니버는 죄인인 인간의 이기심이 집요하고 잔인한 이기주의로 나타나서 이성을 이기심의 도구로 화해 버리고 마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의의 실현이 강제력을 가진 정치적 힘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1)</sup>

니버에 의하면 현실의 사회에서 부정의의 해결은 교육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 합리적 설득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물론 개인과 개인의 충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호애를 발휘할 수도 있고, 불완전하지만 형제애를 실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집단과 집단에서는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충돌에서는 힘에 대해서는 힘으로 도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집단과 집단의 이해 충돌과, 개인과 집단의 이해 충돌에서는 사회조정과 설득으로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특히 집단과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설득과 조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도덕적 설득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 2. 힘의 방법을 통한 정의실현

### (1) 힘의 균형(均衡)

힘의 균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니버의 말 속에 표현되어 있다. “정치의 바로 본질은 힘의 균형(equilibria of power)을 통한 정의의 성취이다.”<sup>22)</sup> 기독교의 정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이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강제력을 포함하는 힘의 조정이 필요하다. 니버는 이것을 정의의 실현과 관련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1) 김태길 외, 『정의의 철학』, 대화출판사, 213-214

22) R.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69

정의는 사랑의 하인일 것이다. 그리고 힘은 정의의 하인일 것이다. 정의의 모든 역사적 형태는 힘의 어떤 형태의 균형(some equilibria of power)에 의해서 획득되었다.<sup>23)</sup>

집단적 이기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정의란 결국 그러한 이기주의를 제도적 장치의 강제력에 의해서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질서의 성립과 유지를 가능케 하며 정치적 정의를 실현케 하는 것이 다른 아닌 가능한 형태의 힘의 균형인 것이다. 니버는 힘의 균형이 바로 그 같은 정의를 가능케 하는 기초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정치적 정의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무정부적 상태를 최선의 가능한 힘의 균형에 의한 어떤 종류의 알맞은 질서 속으로 강요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러한 균형은 일단 성취되면 정착되고, 윤색되고, 심지어 때로는 순수한 도덕적 고려에 의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을 기초로서 가지고 있지 않는 정의의 설계는 역사속에 존재할 일이 없다.<sup>24)</sup>

니버는 인간의 삶이 다른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노예화하는 불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길이 힘의 균형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삶에 의한 하나의 삶의 지배는 힘과 생명력의 균형에 의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약자가 강자에 의해서 노예화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는다. 참을 만한 균형이 없이는 어떠한 도덕적 및 사회적 제약도 불의와 노예화를 막는 데 완전히 성공한 일이

23) R. Niebuhr, *Speak Truth to Power :Comment*, 14

24) R.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35), 104

없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력의 균형은 인간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강요된 조건의 제약 안에서의 형제애의 근사적(approximation) 실현이다.<sup>25)</sup>

힘의 균형은 국가적 이익이 심각하게 대립되는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물론이요, 정부와 국민,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관리자와 직원 등의 관계에서의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한 토대인 것이다. 국가간의 힘의 균형이 없으면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때 침략과 정복의 불의가 발생한다. 정부의 힘과 국민의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정부의 힘이 일방적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폭정의 사태 아니면 국민의 힘이 정부의 힘을 공공연하게 부정해 버리는 혼란의 사태가 초래된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 없으면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서 불의한 착취를 당하게 된다. 힘의 균형이 없이는 사회정의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나, 힘의 균형만 있으면 그것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족한 것이 아니다. 힘의 균형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의해서 지혜롭고 인내성을 가지고 관리될 때라야 사회정의의 바람직한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 (2) 힘의 중심점(中心點)으로서의 정부(政府)

니버는 힘의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결코 정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대편의 힘으로 눌러서 억제하는 것은 또 다른 잠재적 갈등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긴장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이 잠재적 갈등이 표출되어 실재적 갈등으로 나타나게 될 때, 통제 불가능한 상태(Anarchy)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니버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힘의 조직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힘들 가운데서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해야 하는 힘의 중심점이 되는 제도와 기구의 역할을 주장하

25) R.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2, 265

였다. 니버에 의하면 이 힘의 중심적 기관과 제도의 과제는 대략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어떤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갈등들을 조정하는 것과 둘째로, 힘들 사이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상호 도와주는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셋째는, 두 가지의 일로써 충분이 그 기능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라는 보다 큰 원칙과 질서에 그 힘들에게 복종하도록 명령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힘을 각 기관과 제도에 비례적으로 분배해주는 것이다. 니버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힘의 균형 가운데서 정의롭지 못한 힘의 분배와 불균형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니버는 생각했다. 이일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능을 강조했다.<sup>26)</sup>

그러나 니버는 비록 정부라 할지라도 힘의 균형이 그러하듯이 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정부조차 전제와 폭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힘의 중앙조직(정부)은 사회의 단합과 질서를 강제적 방법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손상하게 될지 모른다.”<sup>27)</sup>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패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 이유는 국가 내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이 결코 순수하고 편견 없는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력은 사회의 어느 특정 그룹에 의하여 특유의 견지에서 행사되게 마련이다. <sup>28)</sup> 따라서 정부는 전제정치의 도구로 전락되기 쉽다.

니버는 전제정치의 유혹에서 정부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분산하고 그 분산된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니버의 생각은 그로 하여금 철저히 힘의 정치학을 강조하게 하였다. 우선 개인적으로 시민들은 이 정부의

26) 신원하, 『기독교 윤리와 사회정의』, 한들출판사, 174-175

27) R.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2, 258

28) R.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220-221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헌법적인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sup>29)</sup> 결국 니버는 힘의 균형이라는 원리를 붙잡아 나가면서 이 원리에 따라 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에 유익한 헌법적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은 헌법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신뢰감을 잘 표현해 준다.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나 동시에 인간들이 항상 불의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30)</sup>

### (3) 힘의 균형(均衡)으로서의 정의 실현의 한계

힘은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에 따라 선한 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힘이 될 수도 있다. 힘이 사회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련 되고 그것의 참다운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힘과 정의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힘을 떠나서 정의는 실현될 수 없고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지 않는 힘은 부패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힘과 정의가 이처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힘에 의해서만 이룩된 정의는 그 자체 사악한 정의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힘으로만 달성된 정의는 사실에 있어서 힘의 균형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은, 첫째는, 현상 유지의 항구화를 획책하는 지배집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힘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항구적인 정의의 상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바람직한 정의의 성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 이상의 그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정의를 참다운 의미의 정의가 되게 하는 정의 이상의 그 무엇이란 다른 아닌 예

29) R.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2, 268

30) R.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Children of Darkness*, 1944, xill.

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는 완벽한 정의의 상태가 아니다.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폭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sup>31)</sup> 또, 힘은 한곳에 집중하는 현상을 가진다. 힘이 한 곳에 집중되면, 영국의 액튼경의 말대로 “힘(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힘은 절대로 부패한다.”<sup>32)</sup>

힘의 불균형은 부정의의 발생 원인이었기 때문에 니버에게 있어서 정의는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인 것이다. 포드 자동차 고용주의 강압과 해고의 부정의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니버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다. 현실적 사회에서 힘은 힘으로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힘과 정의만 가지고는 이 사회가 삭막해지고, 더 높은 차원의 원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랑의 원리이다. 정의는 사랑의 원리에 의하여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전한(perfect) 정의(justice)이기 때문이다.

## V. 사랑의 개념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아가페(agape)<sup>33)</sup>의 사랑이다. 니버는 안데스 니그렌의 아가페의 개념을 신약성경의 아가페의 개념과 다르다고 주장한다.<sup>34)</sup> 아가페란 한마디로 자기를 주는 사랑(self-giving love) 혹은

31) 고범서, 『사회윤리학』, 나남, 285

32) Scott Gordon Welfare, *Justice and Freedom*,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 213

33)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니그렌, 『아가페와 에로스』(교육출판공사, 2007)와 진 아웃카 『아가페』(대한기독교서회, 1999)를 참고할 것

34) Robertson *Love and Justice*, 10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 아가페의 사랑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사랑의 형태인 에로스(Eros)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에로스는 획득에의 욕망이요, 추구에의 욕망임에 반하여, 아가페는 자기를 희생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에로스는 위를 향한 운동이요, 신에 이르는 인간의 길임에 반하여 아가페는 하향운동이요, 인간에게 이르는 신의 길이다. 에로스는 그것의 대상 속에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하지만, 아가페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 대상 속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에로스는 먼저 이웃 사랑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사랑에서 완성되지만,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에로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설 여지가 없으며, 아가페에는 자기 사랑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이다.

## VI. 사랑의 역할

인간 사회는 부정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사회이다. 인간의 본성속의 이기심을 많은 사회과학자나 교육학자들은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의의 원인이다.

힘의 균형 상태는 정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휴전 상태로서 계기가 주어지면 그 균형은 언제라도 깨어지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힘의 균형으로서의 평화와 정의의 성취는 그 자체 바람직한 것도 못되고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것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힘의 균형만을 추구하는 사회, 힘은 힘으로만 도전하는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경직될까? 니버는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정의를 넘



어선 사랑(Agape)의 원리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정의만의 정의는 얼마 안되어 정의만 못한 어떤 것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것은 정의 이상의 그 무엇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sup>35)</sup>

정의를 정의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정의 이상의 그 무엇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의 원리와 역할을 통하여 사회는 갈등과 반목에 직면할 때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집단은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집단과 집단의 이해와 실익이 발생하게 되면, 설득과 조정은 쉽지 않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억제하고 다른 집단들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양보하며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형제애가 발휘되고 있다. 부모의 자식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양보한다. 그런데 집단 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할이다. 개인 간의 형제애가 국가, 민족, 사회, 세계로 넓혀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이웃 또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다.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수평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이타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며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

35) R.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258

## Ⅶ. 불가능의 가능성으로의 사랑

니버의 기독교 윤리의 핵심중의 하나는 불가능의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이다. 기독교의 인간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다. 이것은 윤리의 불가능성을 지시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와 역사 속에서 어떤 최종적 윤리를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윤리는 너무 완전하여 그대로 응할 수가 없다. 니버에 의하면 예수의 요청은 결국 인간의 타락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의 윤리적 요청은 타락 이전의 인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무한한 인간의 영적 상태에만 의존하였던 것이다.<sup>36)</sup>

니버는 지적하기를 인간이 역사 속에서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모든 완전주의나 민주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를 비평한다.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은 역사속에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니버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형제애와 완전한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적 동기와 행위에 있어서 완전히 구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능하고 (impossible), 동기와 행위를 표준으로서 연관된(relevant) 것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근사적(approximation)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정의 또한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없지만, 불완전하지만 근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관심을 개인적 관계에서 집단적 관계로 향할 때 “사랑”이라든지 “자기희생” 등의 높은 이상을 실현할 만한 정화의 가능성은 배제되고 만다. 왜냐하면

36) R.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19

집단의 인간관계는 인격적 관계라기보다는 각 집단의 이익을 중심한 비 인격적 관계인만큼 사랑이나 정의, 평화 등은 집단 사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 VIII.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辨證法)

역사적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사랑은 역사안의 모든 정의의 성취의 완성인 동시에 부정이다.<sup>37)</sup> 역사적 정의의 보다 높은 실현은 그러한 모든 정의의 실현이 사랑의 이상의 모순인 동시에 근사적 실현이라는 사실이 보다 충분히 이해 되면 가능할 것이다.<sup>38)</sup>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은 단순한 역사적 가능성이 아니다. 사랑의 계명의 전체적인 함의는 역사와 시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이다.<sup>39)</sup>

정의에 대한 니버의 이론은 정의의 생생한 현실적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같은 역동성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정의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다룬 그의 이론에서라고 할 수 있다. 니버에 의하면, 즉 아가페의 사랑 또는 사랑의 법은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그 하나는 사랑이 정의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이 정의의 부정이라는 사실이다. 사랑은 정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완전한 실현인 동시에 현실의 모든 상대적 실현으로 부정한다. 이 경우 부정이란 현실의 모든 상대적 정의 속에 있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부당한 자기 이익의 요구, 즉 이기주의라

37) R.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3), 246

38) R.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246-247

39) R.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247

는 죄의 요소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아가페의 사랑은 현실의 상대적 정의들을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이상을 향해서 끌어 올리는 구원과 그것들을 아가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는 심판의 이중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니버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그렇지만 정의의 법들과 시스템들은 상호적 사랑과 형제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 관계를 가진다. 그러한 법들과 시스템들은 형제애의 정신에 대한 근사적 실현과 모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sup>40)</sup>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생기는 이러한 관계는 인간이 한편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동경과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에 강하게 집착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역설적 존재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동경과 열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이익을 초월하여 타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을 니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사랑은 정의의 합리적 이상의 완성과 심연으로 남는다. 정의는 최고의 합리적인 도덕적 이상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인간관계와 도덕적 행위를 행동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입장에서 다루려고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는 보답을 받아야만 악한 행위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 나의 이웃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나 자신의 이익 역시 보호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모든 합리적 정의는 항상 정의보다 못한 것으로 빠져 들어간다.<sup>41)</sup>

---

40) R.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251

41) R. Niebuhr, *R. Niebuhr On Politics*, Edited by Harry R. Davis and Robert C. Goo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164

사랑이 정의를 완성하면서 동시에 보정한다는 니버의 주장 속에 함축되어 있지만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의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랑이 정의를 완성한다는 주장 속에는 사랑이 없이는 정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정의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의(正義)가 정의(正義) 아닌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인용된 끝에서 “그러나 합리적 정의는 항상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빠져 들어 간다”고 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정의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의는 정의 아닌 것, 즉 불의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의가 자아의 요구를 인정하는 한 정의는 사랑보다 못한 어떤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정의로 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의 자비(grace)가 없이는 정의는 항상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타락하기 때문이다.<sup>42)</sup>

니버의 사상에서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사랑은 정의를 초월하고 완성하지만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막연하고 애매하며, 감상주의가 될 위험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사랑이 현실 속의 인간관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의의 형식(form)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는 사랑이 정의의 원리로서의 규제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니버가 말한 대로 정의로서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사랑의 원리의 규제가 없으면 폭력이 정의가 되고, 또는 전체주의적 독립 국가는 물론이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가 얼마든지 정의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버가, 정의가 항상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타락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랑과

---

42) R. Niebuhr, *R. Niebuhr on Politics*, 165

정의 사이의 이같은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사상은 사랑과 정의의 실현, 특히 사회적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43)</sup>

## IX.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정의와 사랑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니버의 정의는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이다. 힘은 정의를 정의되게 하는 필수 요소임과 동시에 힘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힘의 과용, 오용, 남용 될 때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과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힘은 분산되고 견제 되어져야 한다. 힘이 정의의 도구가 되려면 철저하게 통제되고 분산, 견제되어야 한다.

사랑과 정의는 어떤 관계인가? 니버에게 사랑은 정의의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규범이다. 사랑은 정의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규범일 뿐이다. 그리고 정의는 사랑의 구체화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사랑은 정의를 통해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정의와 역설적이고도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룬다. 사랑은 타당성이 확보된 정의를 통해서만 근사적으로 성취되고, 정의는 강제적인 제도와 법적인 도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면류관이지만 가장 어렵고도 불가능한 도덕적 이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현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이상이자 윤리적 규범의 정점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이자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사랑은 정의보다 포괄적이고 궁극적이며, 니버에게 사랑은 역사 속에서 정의가 이룩한 모든 과업의 완성이자 그에 대한 부정이고 심판이다.

43) 고범서, 『사회윤리학』, 나남, 286-287

〈국문 초록〉

## 라인홀드 니버의 사랑과 정의 연구

-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 -

이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니버는 사회정의를 언급하기 전에 사회 부정의의 원인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니버는 사회 부정의의 원인으로 첫째, 인간 본성의 죄성(원죄: original sin) 둘째, 힘의 불균형 셋째, 재화의 한정으로 인한 불평등한 분배를 지적하였다. 니버는 부정의를 해소 하는 방법으로 힘의 균형을 통한 정의를 강조했다. 니버 정의론의 핵심은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이다. 니버는 인간 본성의 죄성을 날카롭게 파헤쳤으며, 힘은 정의의 도구이면서, 힘이 한곳에 집중되면 절대 힘은 절대 부패로 나아간다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힘은 분산되고, 견제 되어야 한다.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는 사회는 삭막하고 불안한 사회이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집단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평화가 아닌 투쟁과 힘의 대결만 있게 된다.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집단과 집단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 되었을 때 결코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데, 사랑은 서로의 이익을 억제하게 되며 공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준다.

니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실현할 수가 없지만 근사적(Approximation)으로 실현 시킬 수는 있다. 이것을 니버는 사랑의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이라 한다.

사랑과 정의 사이에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은 완전

한(perfect) 정의이며, 정의는 근사적(approximation)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다.

Key words : 사랑, 힘, 정의, 불가능한 가능성, 힘의 균형,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



〈Abstract〉

## A Study of Reinhold Niebuhr's Love and Justice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cept of love and justice in reference to Reinhold Niebuhr's writings. Niebuhr studied about the cause of social injustice before addressing issues in connection to social justice. He pointed out that social injustice is the result of the original sin embedded in human nature, unbalance of power, and injustice distribution due to limited wealth. He stressed that balance of power is the key to resolve injustices and hence justice.

The main point of Reinhold Niebuhr's theory of justice is the balance of power. He revealed that injustice is attributed to the original sin of human nature and that power is a tool through which justice can be obtained. He warned that power will result in corruption if it is centralized among few people. Therefore, power should be distributed, checked and balanced.

The world will be heartless and unstable if there is confrontations between different forces. Because of the original sin in human mind and the self-centered mind among groups in the society, the world will face conflicts and confrontation, not peace.

We need love to complete the peaceful society. People can't control the self-centered mind when groups fight for profits. Love is the

solution for people to live together and reduce their self-centeredness.

According to Reinhold Niebuhr, we can't fully experience the love of Jesus Christ on Earth, but it's possible to realize it approximately.

Reinhold Niebuhr called this an "impossible possibility." We can find out the dialectic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Love is the perfect justice and justice will become true through the approximate love in the world.

**Key word:** love, justice, power, Impossible Possibility, balance of power, dialectic of love and justice

## 〈참고문헌〉

- Nicholas Woltersto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Wm. B. Eerdmans Publishing, 1983
- R.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Charles Scribner's New York, 1953
- R.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1*,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1
- R.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2*,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3
- R.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and London, 1935
- R.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4
- R. Niebuhr, R. Niebuhr on Politics. Edited by Harry R. Davis and Robert C. Goo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 R.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 R.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5
- D. B. Robertson, *Justice and Love*,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76
- Harey R. Davis and Robert C. Good, eds.,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1960
- Jhon Ralws, *The Theory of Justice*, University of Habard Press, 2002
- Scott Gordon Welfare, *Justice and Freedom*, Columb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
- 고범서, 『사회윤리학』, 나남, 1993
- 고범서, 『파워』, 한림과학원, 2003
-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 김기순, 「권력의 사회윤리학적 고찰」,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4
- 김태길외, 『정의의 철학』, 대화출판사, 1976

럿셀, 『권력』, 열린책들, 1988

이상원, 『라인홀드 니버』, 서울: 살림출판사, 2006

이장형,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윤리 구상과 인간이해』, 승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 『현대 사회와 정의』, 1995

신원하, 『기독교 윤리와 사회정의』, 한들출판사, 2000

니그렌, 『아가페와 에로스』, 교육출판공사, 2007

진 아웃카, 『아가페』, 대한기독교서회, 1999